【July to September 2026 AC Reports】

여러분의 기도와 서포트를 감사드립니다.

3개월간 프로젝트의 성과 및 진행 상황:

(1)2026 한국 대구 세계 마스터스 육상 대회(8월22-27일)

2016년을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나 스포츠선교의 길을 걸어왔지만, 주님께서 10년만에 경기장에 경기자로써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써 돌아가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M40 (만40세-44세의 부)멀리뛰기에서는 결승에서 4위, 100m와 200m는 부상으로 인해 전력질주를 할 수 없어 준결승까지 진출에서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6월13일에 허벅지 뒷근육 10cm 파열 부상(회복에만 전치3개월이상)을 입은 이후로 다리에 불편함이 남아 있었고, 재부상의 우려도 있어 마음껏 준비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리 통증을 느끼며 치른 대회였지만, 10년만에 스타트라인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전을 위해 1년 전부터 삶의 예배의 부분으로 몸을 다시 만들며 성경적인 체육이란 무엇인가는 연구와 실험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습니다.

예전에 한 올림픽 선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만 말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우선은, 해보는 거야.”

이 말이 줄곧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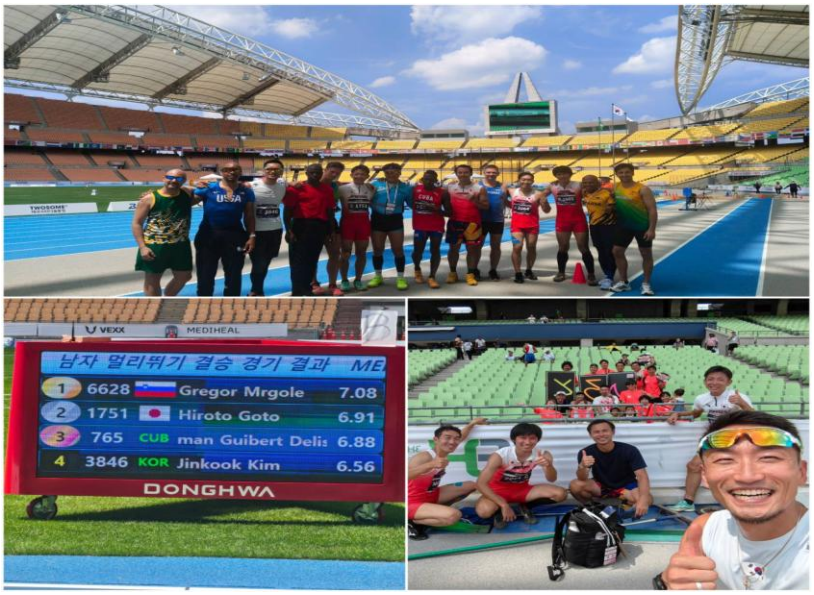
결과가 어땠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 걸음 내디뎌 도전해 보는 것.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 실패한 것, 해낸 것 하나하나가 반드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선교와도 통하는 바라고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한 걸음 내디뎌 도전하는 것. 그 한 걸음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현역시절에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의 재회, 그리고 일본 마스터즈 육상선수들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육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기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un For His Glory



(2)한국 선교 여행

ー 스포츠를 통해 만나고, 관계를 쌓으며, 함께 섬기다 ー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인천, 하남, 부산, 서울 등에서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인천에서는 주니어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지컬 트레이닝과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했고, 하남에서는 홈스쿨링 가족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몸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와 메시지, 교제를 통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Athlete Church'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은, 선교란 단순히 '사역'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통해 관계를 키워가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일본과 한국, 교회와 스포츠를 연결하는 사역을 앞으로도 주님께 맡겨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스포츠 관련 선교팀을 일본으로 파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홋카이도 선교 여행



– 스포츠를 통해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 –

2026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삿포로 미나미 복음 그리스도 교회를 거점으로 UL316 여러분과 함께 약 10일간의 스포츠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Cafe Olive'에서는 건강 체조 교실을 열어, 약 20명의 분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성경 말씀과 구원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운동을 계기로 교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유대가 형성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학생을 위한 육상 교실과 초등학생을 위한 달리기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라고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아이들이 달리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친구를 배려하며, 기꺼이 남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아울러 UL316과 함께 다운증후군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스포츠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해냈다!'는 순간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전원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여유롭게 교제할 시간이 주어져, **"세상에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 "가장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스포츠에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삿포로 미나미 복음 그리스도 교회와 UL316의 여러분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만나고, 관계를 쌓으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을 주님께 맡겨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4)가까운 곳에서 펼치는 선교 여행

ー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선교로 ー

모리오카(내륙)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의 미야코(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피해연안지역)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 체조를 하며, 그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 간증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즐거운 교제와 선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선교는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르신들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심으로써,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셨던 교회분과 건강체조에 참여하셨던 미야코 개척전도의 구도자 분의 친척이 초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선교는 한 발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주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다음에는 그분도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리오카와 미야코를 연결하며, 어르신들과 지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건강과 교제를 통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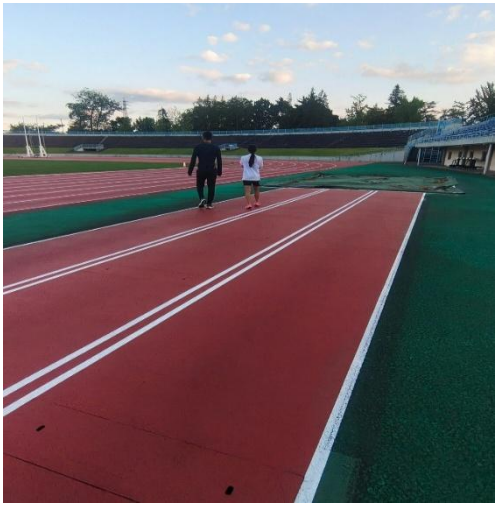
(5)선수의 성장을 함께하는 스포츠 선교

ー 기록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돕다 ー

현재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생 선수가 지난 1년 동안 좀처럼 개인 기록을 갱신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달리기 모습도 보였지만, 조금씩 미소가 늘어나며 육상을 즐기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와테현 대회에서 100m·200m·계주 3관왕을 달성하며, 약 1년 만에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큰 기쁨을 얻었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스포츠 현장에는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신감을 잃고 고민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록이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 곁에 다가가 그들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상을 즐기는 것’, ‘자신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여정에



함께하며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곁을 지키며,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Team AC’**라는 법인 설립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그리고 인생 그 자체를 지탱해 주는 장을 마련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1. 자녀들을 위해

아들 · 준

• 알찬 대학생활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새로 다니게 될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도 복되도록.

• 대학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고, 어떤 때에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매일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딸 · 레이

•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즐겁고 알찬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 육상 경기에서 10월 이와테현 신인 대회를 앞두고 주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 주께서 믿음과 신앙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 QT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 앞으로 겪게 될 경기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2. 사역을 위하여

• 10월, 한국에서 이와테를 방문하는 선교팀과의 사역이 축복받으며, 하나하나의 만남이 좋은 교제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도록.

• 11월에 예정된 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오모리 무목(목회자가 없는)교회 선교 여행이 축복받으며, 다음 세대가 선교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 Athlete Church의 다음 단계를 위한 법인 설립 준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도록.

• 선교 센터 사역을 위해 건물이 필요 여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 앞으로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고, 필요한 사람, 장소, 자원, 협력자가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록.